Original Article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4, Vol. 37, No. 2, 1-17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https://doi.org/10.35574/KJDP.2024.6.37.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아동의 취미지속과 그릿 발달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Received: April 13, 2024
Revised: May 10, 2024
Accepted: May 17, 2024

김보윤[1], 박다은[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학생[1],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2]

교신저자: 박다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Daeunp@skku.edu

Effects of hobby persistence on development of grit in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oyoon Kim[1], Daeun Park[2]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tudent[1]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2]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임 (NRF-2022R1A2C1091871).

© Copyright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1차(만 10세), 12차(만 11세), 13차(만 12세) 종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1,230명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미 활동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아동들을 세 집단(지속적 취미 집단, 일시적 취미 집단, 취미 미지속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취미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한 집단일수록 그릿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미 미지속 집단보다 지속적 취미 집단에 속했던 아동들의 그릿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취미 미지속 집단과 일시적 취미 집단 간에는 그릿 수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그릿을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관련 기술을 숙달하고 성취감을 얻는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취미 활동, 자아존중감, 그릿, 아동, 매개효과

아동기는 전 생애적 발달과정에서 태도, 흥미, 동기, 가치관 형성의 초석이 되는 주요한 시기로(Hartung et al., 2008), 이 시기에 형성된 심리적 요인들은 이후의 성취 및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에 이르면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연결 지어 자신의 미래 목표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의 학업에 대한 동기와 태도로 이어진다(곽미선 외, 2021; Super, 1980). 따라서 그릿(grit), 즉 장기적인 미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개인 내적인 역량(intrapersonal skill)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uckworth, 2016).

그릿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일컫는 용어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역량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삶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예측한다. 가령,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그릿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낮고(Maddi et al., 2012),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고(Usher et al., 2019),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Eskreis-Winkler et al., 2014), 직장 생활을 더욱 오래 유지했으며(Eskreis-Winkler et al., 2014), 노화에 따른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hodes & Giovannetti, 2022). 이러한 그릿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내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조절 학습을 잘 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황매향 외, 2017), 불안 수준이 낮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여울 외, 2019).

그릿은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며,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Duckworth, 2016). 예를 들어,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 지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박신영, 정혜원, 2021; 홍은비, 노성향, 2022; Lin et al., 2023), 교사와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관심과 사회적 지지 역시 청소년들의 그릿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Clark et al., 2020; Datu, 2017).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주관적 안녕감, 우울, 행복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들 역시 그릿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tu et al., 2019; Zhang et al., 2023). 가령, 주관적 안녕감과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 종단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그릿이 시간에 따른 서로의 변화를 예측하며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가 이후의 그릿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Zhang et al., 2023).

선행연구에서 밝힌 그릿을 예측하는 다양한 환경적, 정서적, 심리적 요인들 이외에도 그릿의 개념을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Angela Duckworth (2016)는 취미 활동 역시 그릿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Duckworth에 따르면 취미 활동은 개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한 가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숙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은 그릿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취미 활동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예

를 들어, 취미 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살핀 일부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활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고(Hansen et al., 2003), 이러한 과정은 학습 동기를 높여(Im et al., 2016), 궁극적으로는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취미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취미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Bluechardt & Shephard, 1995; Feraco et al., 2022; Guilmette et al., 2019; Simoncini & Caltabiono, 2012). 가령, 취미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던 대학생들은 목표에 대한 높은 지속성과 자기조절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의 높은 학업 성취와 정서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uilmette et al., 2019).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앞서 Duckworth가 제안한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존재한다. 최효선과 양수진(201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에 참여했던 기간이 길었던 청소년일수록 그릿이 높았으며,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취미 활동의 참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높임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앞선 연구가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의의가 있지만 변인 간의 관계를 횡단자료를 통해 검증했다는 점과 취미 활동이 어떻게 그릿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제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취미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이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행동에 따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건강(Bolognini et al., 1996), 행복(Salavera et al., 2020), 성공(Judge & Bono, 2001), 타인과의 관계(Harris & Orth, 2020) 등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취미 활동 참여가 제안된 바 있는데,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목표를 달성해보는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Darling, 2005; Khanlou, 2004). 실제로, 다수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취미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roh, 2002; Erkut & Tracy, 2002; Mahoney et al., 2006).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동안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주었고(Kort-Butler & Hagewen,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취미 활동 참여가 개인의 긍정적 사고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Zhang, 2001). 다시 말해, 취미 활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고 스스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와 성취감은 자아존

중감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높은 자아존중감은 장기적인 목표나 어려운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도모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실패나 좌절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여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Wigfield & Eccles, 2000). '기대-가치 모형(expectancy-valu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과 선택은 자신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igfield & Eccles, 2000). 선행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 및 믿음이 과제에 시간을 들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적 동기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 행동과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Nagle, 2021). 즉, 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참여하는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특정 활동에 열정을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내재적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그릿 발달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가령, 한 종단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그릿의 노력지속 특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Park, 2023),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다시 그릿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전숙영, 2021).

종합해보면, 취미 활동이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릿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취미 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성공 및 실패가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돕고, 자아존중감이 그릿의 발달을 돕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는 이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릿의 개인차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Zhang et al., 2023)와 그릿이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하여진, 2022)에 기반하여 '취미 활동-자아존중감-그릿'간의 관계성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이 단순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넘어 아동의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과 인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지속적인 취미 활동 참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로 이어져 이후 그릿을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그림 1). 비록 선행연구에서 그릿의 하위개념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독립적인 개념으로 탐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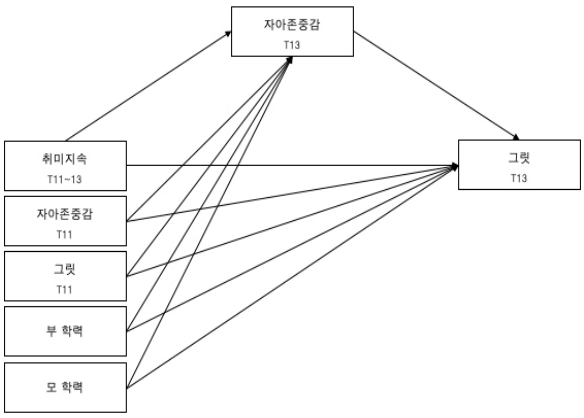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Credé, 2019),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 참여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집념이라는 결합적 의미의 그릿(Duckworth et al., 2021)에 미치는 영향성에 주안을 두고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취미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할수록 이후 그릿의 수준이 높아지는가?

연구 문제 2. 지속적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이후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종단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2,15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1차(2008년)부터 13차(2020년)까지의 데이터가 공개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11차~13차(만 10~12세)까지의 자료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단 데이터 특성상 발생하는 결측치는 완전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30명이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아 50.8%, 여아 49.2%에 해당된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취미지속, 자아존중감, 그릿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11차~13차에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취미 활동 종류와 아동이 보고한 13차 자아존중감, 13차 그릿 자료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취미지속이 자아존중감과 그릿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11차 자아존중감, 11차 그릿, 그리고 부모학력 자료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취미지속(T11~T13)

취미지속은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취미 활동 종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악기 종류와 스포츠 종류 2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아동이 참여하는 악기/스포츠 활동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제시되어있다. 악기 활동의 경우에는 “OO(이)가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악기 9가지 종류(예,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가 제시되었고,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OO(이)는 어떤 운동을 즐겨하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스포츠 14가지 종류(예, 축구, 농구, 테니스 등)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1차, 12차, 13차 취미 활동 종류 자료를 활용하여 취미를 지속한 기간에 따라 아동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우선, 11차, 12차, 13차 모두 동일한 악기를 취미로 갖고 있거나 혹은 동일한 스포츠를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 2로 코딩하였으며, 이는 2년 동안 취미를 지속한 ‘지속적 취미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11차와 12차, 혹은 12차와 13차와 같이 두 차시에 연달아 동일한 악기 혹은 동일한 스포츠 활동을 취미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으며, 이는 1년 동안 취미를 지속한 ‘일시적 취미 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취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취미 활동을 연달아 지속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이는 '취미 미지속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자아존중감(T13)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수정한 MCS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5문항 4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13차 자아존중감 자료를 사용하였다. 13차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이다.

그릿(T13)

그릿은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8문항 5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긍정문항 4문항(예, "나는 부지런하다.")과 부정문항 4문항(예,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문항과 역채점한 부정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그릿 척도에 직접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13차 그릿 자료를 사용하였다. 13차 그릿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0이다.

통제변인(T11)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변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기에 이전 시점(T11)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11차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3이며, 11차 그릿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2이다. 더불어, 아동의 취미 활동 참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밀접 관련되어 있기에(Okamoto et al., 2013),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구하여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취미지속 수준별 집단에 따른 그릿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상관은 r = .095, p < .001, 취미지속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은 r = .115, p < .0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동일한 취미 활동에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하는 아동일수록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M*	*SD*	1	2
1. 취미지속	–	–		
2. 그릿	3.178	0.559	.095**	
3. 자아존중감	3.322	0.557	.115**	.395**

N = 1,230. **p < .001.

았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그릿 간에도 정적상관이 유의했는데, r = .395, p < .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그릿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간 그릿 수준의 차이

총 1,230명의 아동 중 613명(49.8%)이 지속적 취미 집단으로, 262명(21.3%)이 일시적 취미 집단으로, 355명(28.9%)이 취미 미지속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성별 비율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세 집단 간 표본 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세 집단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집단의 기술통계와 집단 간 그릿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에 따른 그릿의 평균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 취미 집단은 평균 3.229(*SD* = 0.570), 일시적 취미 집단은 평균 3.155(*SD* = 0.562), 취미 미지속 집단은 평균 3.107(*SD* = 0.528)로 취미 활동을 지속한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평균 그릿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취미 지속 집단에 따른 그릿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227) = 5.692, p = .003. 구체적으로, 지속적 취미 집단은 취미 미지속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나타냈다, t(1227) = 3.290, p = .001. 그러나 지속적 취미 집단은 일시적 취미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나타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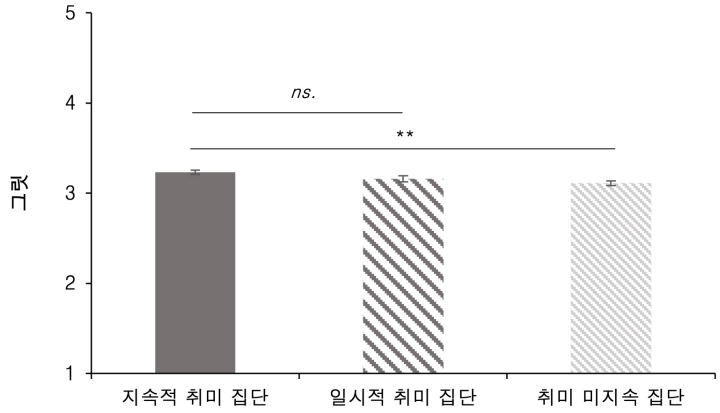

그림 2. 취미지속 수준별 집단에 따른 그릿 수준의 차이. 오차막대는 평균표준오차를 의미함. **p < .001. 지속적 취미 집단: n = 613, 일시적 취미 집단: n = 262, 취미 미지속 집단: n = 355.

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227) = 1.795$, $p = .073$. 더불어 일시적 취미 집단과 취미 미지속 집단 간에도 그릿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1227) = 1.067$, $p = .286$.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취미를 지속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그릿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에 모형 4번을 적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표집을 5,000번 실시하였다. 이때, 취미지속 변인은 연속형 변인으로 간주하여 예측변인에 투입하였으며, 13차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13차 그릿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차 자아존중감과 그릿, 그리고 부모학력을 통제하고도 취미지속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45$, $p = .010$). 또한, 자아존

표 2. 취미지속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그릿에 미치는 매개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R^2	B	95% LLCI	95% ULCI
자아존중감	취미지속	.141**	0.045*	0.011	0.079
그릿	취미지속	.219**	0.014	− 0.019	0.047
	자아존중감		0.340**	0.286	0.393
전체	직접효과		0.014	− 0.019	0.047
	간접효과		0.015	0.003	0.028

부트스트래핑 5,000번 시행. $N = 1,230$. $^{*}p < .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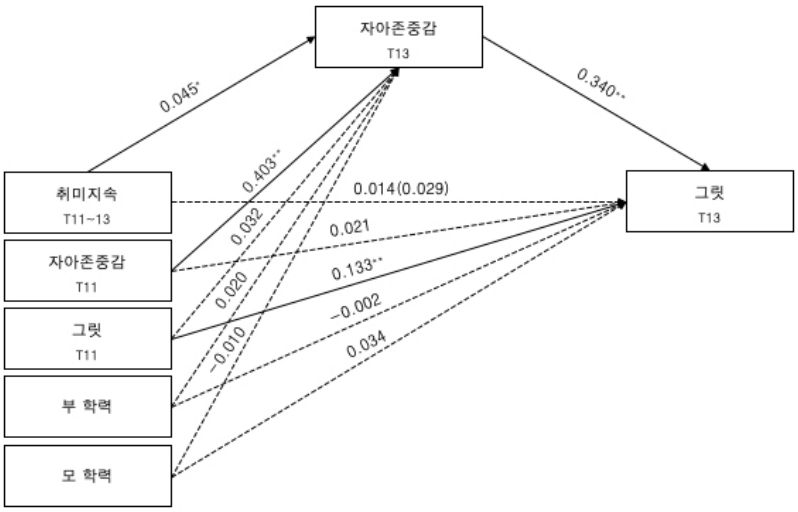

그림 3. 취미지속, 자아존중감, 그릿의 경로 모형. $^{*}p < .05$, $^{**}p < .001$. 괄호 안의 숫자는 총 효과를 나타냄.

중감은 그릿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B = 0.340, p < .001), 취미지속은 그릿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14, p = .412). '취미 활동→자아존중감→그릿'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간접경로의 경우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003, 상한값 0.028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019, 상한값 0.047으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그릿 발달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의 지속기간을 탐색하기 위해, 만 10세에서 12세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이 참여한 취미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취미지속 기간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흥미롭게도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코로나19가 포함된 2018년~2020년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악기 혹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취미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시기에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의 실시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들은 지속적인 취미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1,230명의 아동들 중 약 절반(49.8%) 정도의 아동들이 2년 동안 동일한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절반의 아동들은 일시적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21.3%) 취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28.9%)으로 나타났다.

취미 지속 기간에 따른 세 집단 간 그릿 수준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2년)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 집단, 일시적(1년)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 집단,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집단 순서대로 그릿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미 활동이 학업 성취, 주관적 행복감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면서도(Guilmette et al., 2019; Hansen et al., 2003; Simoncini & Caltabiono, 2012), 한 목표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는 그릿의 특성을 반영하듯 그릿에 대한 취미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취미 활동이 그릿 발달의 장이 되어줌으로써 지속적인 취미 활동의 참여가 그릿의 발달을 돕는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다(최효선, 양수진, 2018; Duckworth, 2016).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취미지속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성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취미지속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취미 활동 참여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아동의 그릿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취미 활동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Daniels & Leaper, 2006; Erkut & Tracy, 2002), 자아존중감이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ark, 2023). 즉, 취미 활동이 그릿의 발달을 도모하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어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가 그릿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온라인 수업 등이 실시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여가 및 취미 활동 참여 역시 그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미디어 사용 및 게임 활동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Ramshaw & Gammon, 2020; Zhu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활동, 예술 관람과 같은 활동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미디어 활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와도 일치한다(유예린, 이현실, 2021).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의재, 강현욱, 2020), 실제로, 코로나 이후 아동들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 비율은 82%에서 96.9%까지 증가한 실정이다(정익중 외, 2020).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미디어 사용과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악기 연주 혹은 스포츠 활동과 같은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의 효과가 단순히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취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할 때 더욱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들이 취미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후속 연구자들은 체계화된 취미 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취미 활동 속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맥락요인들과 취미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심리적 경험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들은 아동의 취미 활동 참여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여가 시간, 그릿과 밀접 관련되어 있는데, 부모가 따스함,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운동, 독서 등 자녀의 여가 활동 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경향성이 있었고(허무녕, 김춘경, 2022), 아동이 스스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목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어 그릿의 발달을 도모하였다(박신영, 정혜원, 2021; 홍은비, 노성향, 2022). 비록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와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주안을 두었기에 취미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 변인들을 탐색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취미 활동 참여와 그릿의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외부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3년 동안의 자료(11차, 12차, 13차)를 기반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 햇수(1년 단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취미 활동을 지속한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그릿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장기적인 취미 활동 참여의 기준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취미를 지속한 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취미 활동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될 때 나타나는지, 취미 활동 지속 기간과 긍정적 효과 간의 선형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다.

둘째, 지속적 취미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실제로 2년 동안 취미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였는지와 취미 활동에 얼마나 열의를 가졌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만 10세, 11세, 12세 때의 취미 활동 참여여부와 참여하는 취미 활동의 종류만을 설문했기 때문에, 아동이 취미 활동에 할애한 시간 및 열의의 정도는 알 수 없다. 가령, 동일한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미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동 본인보다 부모의 압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경우 취미 활동에 대한 아동의 열의는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취미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의 참여 빈도, 취미 활동에 대한 열의 및 자발성과 같은 취미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가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조절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을 체육 및 음악 관련 활동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취미 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취미 활동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은 취미 활동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Bartko & Eccles, 2003; Kort-Butler & Hagewen, 2011; Larson et al., 2006).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탐색한 연구에서는 컴퓨터 게임,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보다 스포츠, 악기 연주와 같은 능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Iso-Ahola, 1980; Trainor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릿 발달을 도모하는 악기 연주 및 스포츠 활동과 달리 컴퓨터 게임 및 TV 시청과 같은 취미 활동은 오히려 그릿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종류의 취미 활동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하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범위의 취미 활동들을 고려하여 그릿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기간의 취미 활동 참여가 아동의 그릿 발달에 미치는 영향성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 더 나아가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미를 고려한 특별 활동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곽미선, 김영화, 권선아, 이수영 (2021).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827-839.

김의재, 강현욱 (2020). 여가제약과 여가참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4**(3), 59-68.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5**(3), 63-74.

박신영, 정혜원 (2021).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67-81.

신여울, 박다은, 구민주 (2019). 고등학생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21-36.

유예린, 이현실 (2021). covid-19 시대의 여가만족이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사회과학, 56**(1), 31-50.

전숙영 (2021).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후기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직렬이중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4), 17-32.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 19 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최효선, 양수진 (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하여진 (2022).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그릿 (Grit) 수준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24**(5), 1961-1974.

허무녕, 김춘경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여가시간 사용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583-597.

홍은비, 노성향 (2022).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 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 그릿 (Grit) 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34**, 57-80.

황매향, 하혜숙, 김명섭 (2017). 초등학생의 그릿 (Grit) 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301-319.

Bartko, W. T., & Eccles, J. S. (2003). Adolescent participation in structured and unstructured activities: A person-oriented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233 - 241. https://doi.org/10.1023/a:1023056425648

Bluechardt, M. H., & Shephard, R. J. (1995). Using a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enhance social skill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8*(3), 160-169. https://doi.org/10.1177/002221949502800305

Bolognini, M., Plancherel, B., Bettschart, W., & Halfon, O. (1996).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19*(3), 233-245. https://doi.org/10.1006/jado.1996.0022

Broh, B. A. (2002). Linking extracurricular programming to academic achievement: Who benefits and why?. *Sociology of education*, *75*(1), 69-95. https://doi.org/10.2307/3090254

Clark, K. N., Dorio, N. B., Eldridge, M. A., Malecki, C. K., & Demaray, M. K. (2020).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A model of social support and grit. *Psychology in the Schools*, *57*(2), 204-221. https://doi.org/10.1002/pits.22318

Credé, M. (2019). Total grit scale score does not represent persevera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10), 3941-3941. https://doi.org/10.1073/pnas.1816934116

Daniels, E., & Leaper, C. (2006).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port participation, peer acceptanc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Sex roles*, *55*, 875-880. https://doi.org/10.1007/s11199-006-9138-4

Darling, N. (2005).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adjustment: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493-505. https://doi.org/10.1007/s10964-005-7266-8

Datu, J. A. D. (2017). Sense of relatedness is linked to higher grit in a collectivist set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 135-138. https://doi.org/10.1016/j.paid.2016.09.039

Datu, J. A. D., King, R. B., Valdez, J. P. M., & Eala, M. S. M. (2019). Grit is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on via meaning in life among Filipino high school students. *Youth & Society*, *51*(6), 865-876. https://doi.org/10.1177/0044118X18760402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Vol. 234). New York: Scribner.*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Duckworth, A. L., Quinn, P. D., & Tsukayama, E. (2021). Revisiting the factor structure of grit: A commentary on Duckworth and Quinn (2009).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3*(5), 573-575. https://doi.org/10.1080/00223891.2021.1942022

Erkut, S., & Tracy, A. J. (2002). Predicting adolescent self-esteem from participation in school sports among Latino subgroup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4*(4), 409-429. https://doi.org/10.1177/0739986302238212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36), 1-12. https://doi.org/10.3389/fpsyg.2014.00036

Feraco, T., Resnati, D., Fregonese, D., Spoto, A., & Meneghetti, C. (2022). Soft skill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stain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t school.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90*(3), 550-569. https://doi.org/10.1080/00220973.2021.1873090

Guilmette, M., Mulvihill, K., Villemaire-Krajden, R., & Barker, E. T. (2019). Past and present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s associated with adaptive self-regulation of goals, academic success,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73*, 8-15. https://doi.org/10.1016/j.lindif.2019.04.006

Hansen, D. M., Larson, R. W., & Dworkin, J. B. (2003). What adolescents learn in organized youth activities: A survey of self-reported develop-mental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25 - 55. https://doi.org/10.1111/1532-7795.1301006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Harris, M. A., & Orth, U. (2020).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6), 1459. https://doi.org/10.1037/pspp0000265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8). Career adaptability in childhood.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1), 63-74. https://doi.org/10.1002/j.2161-0045.2008.tb00166.x

Im, M. H., Hughes, J. N., Cao, Q., & Kwok, O. M. (2016). Effects of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during middle school on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at grade 9.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3*(5), 1343-1375. https://doi.org/10.3102/0002831216667479

Iso-Ahola, S. 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William C. Brown*.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https://doi.org/10.1037/0021-9010.86.1.80

Khanlou, N. (2004).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 esteem in multicultural Canadian secondary schools. *Public Health Nursing*, *21*(5), 404-411. https://doi.org/10.1111/j.0737-1209.2004.21503.x

Kort-Butler, L. A., & Hagewen, K. J. (2011). School-based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and adolescent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568-581. https://doi.org/10.1007/s10964-010-9551-4

Larson, R. W., Hansen, D. M., & Moneta, G. (2006). Differing profiles of developmental experiences across types of organized youth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849 - 863. https://doi.org/10.1037/0012-1649.42.5.849

Lin, W., Liu, J., Xiang, S., Cai, J., Xu, J., & Lian, R.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sitive parenting style and chinese adolescents' academic grit: A parallel mediating model. *Current Psychology*, *43*(1), 272-280. https://doi.org/10.1007/s12144-023-04249-1

Maddi, S. R., Matthews, M. D., Kelly, D. R., Villarreal, B., & White, M. (2012). The role of hardiness and grit in predict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of USMA cadets. *Military psychology*, *24*(1), 19-28. https://doi.org/10.1080/08995605.2012.639672

Mahoney, J. L., Harris, A. L., & Eccles, J. S. (2006). Organized activity participa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the over scheduling hypothesis. *Social Policy Report, 20*(4), 1-30. https://doi.org/10.1002/j.2379-3988.2006.tb00049.x

Nagle, C. (2021). Using Expectancy Value Theory to understand motivation, persistence, and achievement in university level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54*(4), 1238-1256. https://doi.org/10.1111/flan.12569

Okamoto, D. G., Herda, D., & Hartzog, C. (2013). Beyond good grades: School composition and immigrant youth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42*(1), 155-168.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2.08.005

Park, S. (2023).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grit,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primary school stud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https://doi.org/10.1177/01430343231216973

Ramshaw, G., & Gammon, S. (2020). Difference, dissonance, and redemption in sport heritage: Interpreting the tangled legacy of Pete Rose at two museums. *Journal of Heritage Tourism, 15*(2), 217-227. https://doi.org/10.1080/1743873X.2019.1609002

Rhodes, E., & Giovannetti, T. (2022). Grit and

successful aging in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26*(6), 1253-1260. https://doi.org/10.1080/13607863.2021.1919990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https://doi.org/10.1037/t01038-000

Salavera, C., Usán, P., & Teruel, P. (2020).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3*, 355-361. https://doi.org/10.2147/prbm.s240917

Simoncini, K., & Caltabiono, N. (2012). Young school-aged children's behaviour and their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7*(3), 35-42. https://doi.org/10.1177/183693911203700306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

Trainor, S., Delfabbro, P., Anderson, S., & Winefield, A. (201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33*(1), 173-186.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9.03.013

Usher, E. L., Li, C. R., Butz, A. R., & Rojas, J. P. (2019). Perseverant grit and self-efficacy: Are both essential for children'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5), 877-902. https://doi.org/10.1037/edu0000324

Wigfield, A., & Eccles, J. S. (2000). Expectancy–value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68-81. https://doi.org/10.1006/ceps.1999.1015

Zhang, L. F. (2001). Thinking styles, self-esteem, and extracurricular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6*(2), 100-107. https://doi.org/10.1080/00207590042000128

Zhang, T., Park, D., Tsukayama, E., Duckworth, A. L., & Luo, L. (2023). Sparking Virtuous Cycles: A Longitudinal Study of Subjective Well-Being and Grit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1), 1-12. https://doi.org/10.1007/s10964-023-01862-y

Zhu, S., Zhuang, Y., Lee, P., Li, J. C. M., & Wong, P. W. (2021). Leisure and problem gam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school closures caused by COVID-19 in Hong Kong: quantitative cross-sectional survey study. *JMIR serious games*, *9*(2). https://doi.org/10.2196/26808 e26808.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4, Vol. 37, No. 2, 1-17

Effects of hobby persistence on development of grit in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oyoon Kim[1] Daeun Park[2]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tudent[1]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2]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persistence with a hobby predicts high levels of grit and whether self-esteem mediates this relationship. Using data from the 11th, 12th, and 13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hobby, grit, and self-esteem among 1,230 children. First, we classified the children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in their hobby (no hobby, temporary hobby, continuous hobby). Next,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istence with a hobby and grit.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in the continuous hobby group were grittier than those in the temporary hobby or no hobby group. Interestingl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rit was observed between children in the temporary hobby group and those in the no hobby group. Additionally, the effects of a persistent hobby on grit were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inuous participation in a hobby can increase children's self-esteem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rit.

Keywords : Hobby, self-esteem, grit, children, mediation